



What's new

Connect for Impact

제 52 호 | 2021.10.28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딜로이트, 2021 회계연도 총 매출 502 억 달러 기록

딜로이트 안전, 한 달에 한 번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한국 딜로이트 그룹, SAS 코리아와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위한 ESG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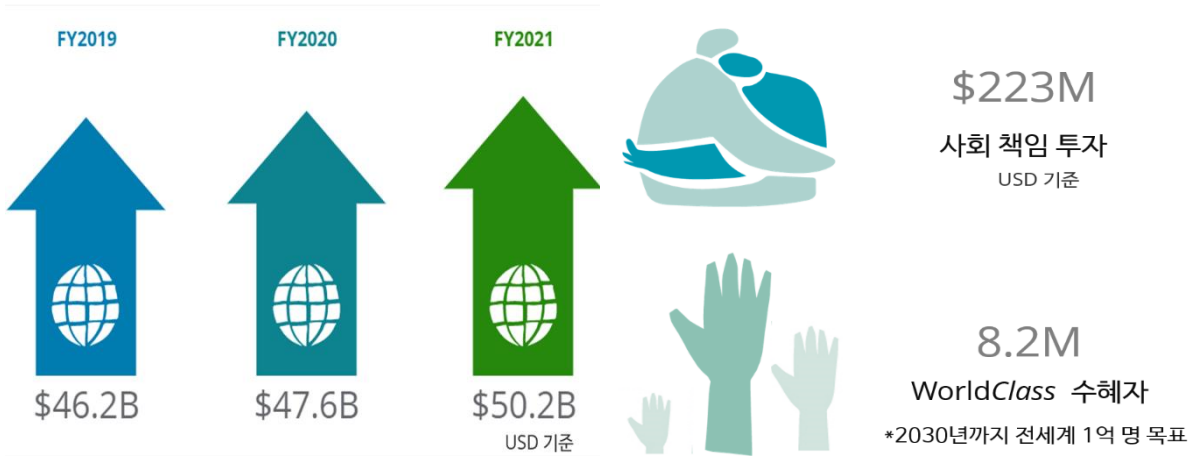
딜로이트, 글로벌 기업 최초로 전 임직원 대상 기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딜로이트, 2021 회계연도 총 매출 502 억 달러 기록

전년 대비 5.5% 성장·아시아퍼시픽 최고 성장률...기후대응 등 소셜 임팩트 투자 2 억 2300 만 달러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중성)은 13 일, 딜로이트 글로벌이 5 월 31 일자로 2021 년 회계연도를 마감하며 공개한 실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딜로이트의 2021 년 회계연도 총 매출은 502 억 달러(약 58 조 4127 억 원)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그림 1 참조) 사업부문별로는 재무자문서비스가 12.9% 로 가장 크게 성장했고, 그 뒤를 이어 회계감사서비스가 6.1%, 그 뒤를 이어 리스크자문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세무자문서비스가 차례로 전년 대비 5.6%, 5%, 2.3%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지역권별로는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지역이 14%로 성장 최대치를 기록했고, 유럽/중동/아프리카(EMEA)지역이 11.3%의 성장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림 1> 최근 3 년간 매출 추이

<그림 2> 2021 회계연도 사회공헌 투자 규모

딜로이트는 실적과 함께 인력구성, 사회공헌투자 등 사회와 환경에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의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담은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교육, 다양성, 평등, 포용, 환경 등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공개한 ESG 보고서를 포함하는데, 딜로이트가 ESG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최근 세계적 트렌드인 ESG 경영에 포커스를 맞춘 보고서로, 딜로이트의 2021 년 회계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문(Social Impact) 투자는 2 억 2300 만 달러(약 2,595 억 원)에 달합니다.

푸닛 렌젠(Punit Renjen) 딜로이트 글로벌 CEO 는 “딜로이트는 협업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비즈니스와 사회문제에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딜로이트는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이 팬데믹에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더불어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그는 “더 나은 의료 형평성과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2030 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WorldClimate 를 성취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중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지난해 6 월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에 합류한 후 딜로이트 전 멤버쉽에서 최고의 성장율을 기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아시아퍼시픽 펌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한 구성품으로서 앞으로도 성장 가속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 유치로 시장을 선점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로이트의 '2021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2021 Global Impact Report)'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한 달에 한 번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업계 최초 고객 대상 월간지 같은 정기 웨비나... 실제 사례 중심 전문가 지식·인사이트 최대치 전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 주요 기업 인사·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관련 세무이슈와 동향을 설명하는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시도한 정기 웨비나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주요 고객사의 실무진들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내·외 세무이슈, 개정세법 등 세무관련 관련 지식을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월간지 발행처럼 월 1회, 1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아래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세무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망합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세소득의 범위는 물론 출입국 관련 규정 등 단기체류와 장기체류 시 등 근무 형태와 특성에 따라 세무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 실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GES(Global Employer Service) 그룹 전문가들이 사례 중심, 실무 지향적 핵심지식은 물론 참가 기업에 한해 필요 시 복잡한 세무이슈에 대한 기업별 맞춤 세무클리닉도 제공합니다.

9월 27일에 열렸던 첫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전문가인 왕성숙 GES 그룹 이사의 진행으로 김동운 GES 그룹 이사가 '5년 이상 한국 체류한 외국인 임원의 세무신고 의무 변화'를 주제로 과세소득의 범위, 단일세율 적용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0월에는 '한국에 출장 온 외국인의 세금납부의무 여부'를, 11월에는 '체류기간에 따라 변화되는 외국인 사증유형 준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2월에는 '해외 모회사 주식보상소득과 관련된 세무관리 방법', 마지막회는 '2022년 개정소득세법 총정리 및 2021 외국인 소득세 신고 주요 체크리스트' 등이 주제로 예정돼 있습니다.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 회차별 주제

일 정	주 제
21년 9월	한국 체류 5년 초과 외국인 임원, 세무신고의무 무엇이 달라질까?
21년 10월	한국으로 출장 온 외국인의 세금납부 꼭 해야 할까?
21년 11월	체류기간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사증유형 준비 가이드
21년 12월	해외 모회사 주식보상소득, 세무관리 어떻게?
22년 1월	2022 달라지는 개정소득세법 총정리 & 2021 외국인 소득세 신고 주요 체크리스트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비대면 등 고객의 달라진 근무환경에 애자일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전 오프라인 세미나를 웨비나 형태로 전환하는 시도”라고 설명하면서 “월간 GES 웨비나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세무업무 이슈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식과 인사이트의 최대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ZOOM 을 통해 진행되며, 매월 웨비나에 대한 사전 참가 신청은 웨비나 담당자 이메일(youngsjeong@deloitte.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SAS 코리아와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위한 ESG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SAS 코리아 전문가 연사로 대거 참여...국내 금융계 ESG 현황·솔루션 및 사례 소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10 월 7 일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기관인 SAS 코리아와 함께 ‘딜로이트(Deloitte)-SAS 가 함께 하는 금융권 기후 리스크(Climate Risk) 관리를 위한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추세에 맞춰 올해 초 112 개 국내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과 더불어 책임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지속가능금융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산업계 역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딜로이트와 SAS 코리아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후 ESG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핵심지식과 인사이트를 전달했습니다. 국내외 은행, 보험, 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에서 20 년 이상 자문업무를 수행한 안상혁 딜로이트 컨설팅 금융산업 총괄리더가 사회를 맡고, 양사 전문가들이 각 세션별로 구체적인 금융산업 ESG 현황 및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솔루션과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장과 이광열 SAS 코리아 전무의 인사 후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경흠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지속가능금융,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ESG 동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금융산업에 적용 가능한 양사의 ESG 관련 서비스와 솔루션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승영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금융권 ESG 플랫폼 구축’을, 임정훈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ESG 기반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기완 SAS 코리아 상무가 ‘스트레스 테스트 기반 Climate Risk 관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 이사가 ‘국내 금융사 ESG 추진 사례’를, 이두호 SAS 코리아 수석이 ‘일본 금융사 ESG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백인규 ESG 센터장은 “ESG 가 많은 기업의 경영 화두가 된 시기인만큼 기업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금융계에도 ESG 경영 및 전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SAS 코리아와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 실무진들이 지속가능금융 전략과 금융업계의 ESG 경영에 대한 솔루션과 대응 전략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글로벌 기업 최초로 전 임직원 대상 기후 교육 프로그램 실시

월드클라이밋' 전략 기반, 전세계 35 만 여 명에 최신과학·정보 제공으로 기후행동 장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가 글로벌 기업 중 최초로 전세계 35 만 여 명의 임직원에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과 협력해 개발된 딜로이트의 기후 교육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해력인 기후 리터러시(literacy)를 높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감 있는 선택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딜로이트의 기후 교육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말까지 전세계 딜로이트 임직원 35만 여 명의 100% 학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후변화 통계 및 수치 자료 외에도 인터랙티브 영상, 데이터 시각화, 기후행동에 앞장서는 전세계 딜로이트 임직원 인터뷰 등으로 구성돼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딜로이트는 자체 교육 채널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최신 과학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론칭하는 기후 교육 프로그램은 딜로이트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월드클라이밋(WorldClimate)의 구체적 실천의 일환입니다. 2020년 9월 시작된 월드클라이밋 전략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 딜로이트 전 오피스에서 그린 운영 촉진, 선제적인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딜로이트 전 임직원 대상 교육과 독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생태계 연결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푸닛 렌젠(Punit Renjen) 딜로이트 글로벌 CEO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며 "딜로이트의 기후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의 자산과 임직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로 35만 여 명의 임직원을 교육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습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ESG 경영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 역시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전 임직원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구성원이자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